

2024 소전재단
초대전

Be Hope



김운성
Kim eunsung

Be Hope

목차

Contents

4	인사말 이동섭	Foreword Lee Dong-Seob
6	추천의 글 강성은	Testimonial Kang Sung-Eun
12	도판	Works
50	약력	Biography

인사말

2024년 봄!

근본을 이야기 하는 김운성 작가가 생명, 씨앗 그리고 싹을 작품으로 선보였습니다.
작가의 깊은 생각을 인사말로 다 담지 못하지요.
그저 보는 이로 하여금 상상의 나래에 씨앗을 품었으면 합니다.
그 씨앗이 전쟁 없는 인류의 평화와 모든 이가 존중받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전미술관이 거듭납니다.
시흥시민의 벗으로 더욱 가까이 가기 위해 많은 애를 썼습니다.
함께 라는 말.
소전미술관이 그런 미술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모시겠습니다.
두 손 모아.

소전재단 이사장 · 소전미술관 관장 이동섭

Foreword

Spring 2024!

Artist Kim eun-sung, who delves into origins,
has unveiled works centered on life, seeds, and sprouts.
It's impossible to encapsulate the depth of the artist's thoughts in a mere greeting.
I wish for those who view these works to harbor the seeds of imagination.
May these seeds grow into a society where peace reigns without war, and every individual
is respected.

The Sojeon Museum is undergoing a rebirth.
We've strived to draw closer to the citizens of Siheung and be friends.
The word 'together.'
We hope that the Sojeon Museum becomes such a place.

We warmly welcome you.
With both hands together.

Sojeon Foundation Chairman & Sojeon Museum Director, Lee Dong-Seob

추천의 글

강성은 (전시기획자)

콩은 제 몸을 갈라 뿌리를 내밀고 떡잎을 만든다.

1.

투명한 살레에 숨을 깔고 물을 뿌린 후에 콩 몇 개를 올려놓고 며칠이 지나면 물과 햇빛만 가지고도 콩은 제 몸을 갈라 뿌리를 내밀고 떡잎을 만든다. 생명이 만들어지는 순간을 처음 지켜본 기억이다. 김운성 개인전 «Be Hope»는 이렇게 막 생명이 탄생하는 순간의 떡잎을 모티프로 한다. 떡잎은 생명이 탄생하고 성장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더 넓은 의미에서는 희망과 새로운 삶의 시작을 상징한다.

잘 알려졌듯이 김운성은 조각가 김서경과 함께 <평화의 소녀상>을 만든 작가이다. 2011년 12월 14일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 집회' 1,000회를 맞아 세운 첫 <평화의 소녀상>은 이후 전국을 넘어 전 세계로 늘어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본질을 알리기 위해 제작한 것이지만 조각상이 여러 곳에 설치되면서 그 의미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모든 전쟁에서 피해를 보는 여성과 어린이의 더 나아가 전세계적으로 평화를 촉구하는 의미로 확장했다.

김운성과 김서경의 공동작업은 주로 정치·사회·역사적인 내용을 담은 조형물이다. <평화의 소녀상> 제작 이전에 <동학 100주년 무명 농민군 추모비>(1994), <서울교대 박선영 추모 조형물>(1994), <민족시인 채광석 시비>(2000)와 같은 열사(烈士)나 민주화 운동의 희생자를 기록하는 작업을 해왔다. <평화의 소녀상> 제작 이후에도 <미선·효선 추모비>(2012), <독립운동가 조문기 선생 기념비>(2014),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상>(2016), <굽히지 않는 펜>(2019)과 같이 왜곡된 역사를 바로 세우고 불합리한 사회를 비판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갔다.

김운성과 김서경의 공동작업을 언급한 것은 이번 김운성의 개인전에 출품되는 작업은 이렇게 두사람의 공동작업으로 잘 알려진 작업과 매우 조형적으로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먼저 언급한 작품들은 대부분 무겁고 어두운 브론즈를 사용해 고전적인 인물의 형태를 재현하는 방식이다. «Be Hope»에 전시된 작품은 합성수지를 사용해 만든 떡잎의 단순한 형태에 노랑, 연두, 주황 같은 채도가 높은 색으로 채색을 했다.

김운성은 사실적인 표현이 매우 뛰어난 작가이다. 하지만 그가 가끔씩 보여주는 알록달록하고 형태가 생략되거나 단순한 작업들도 재미있다. 동물을 의인화 하기도 하고, 열쇠 형태의 조형물에 남한과 북한의 국기를 리본과 천으로 작업한 <평화의 열쇠>시리즈(2018), 붉은색과 푸른색으로 만든 단순화된 인체가 직각으로 붙어 있어 어느 하나를 세워놓으면 다른 하나는 그림자처럼 바닥에 놓이게 되는 도무지 조화로울 수 없는 이념의 대립을 보여주는 <딜레마>(2019) 등 어떤 정치적 상황을 풍자적으로 묘사했지만 정곡을 찌르는 내용이 울림을 준다.

2.

2016년 서울광장에서는 «전쟁 없는 세상을 위한 AEV(Art's Eye View) 프로젝트»가 열렸다. 이 프로젝트에서 김서경과 김운성은 매향리에서 반출한 포탄과 탄피를 작품의 재료로 적극적으로 이용한 설치작품을 전시했다. 매향리에서 반출한 포탄과 탄피는 1951년 한국전쟁 당시 주한미공군의 폭격기 사격장으로 지정된 후 2005년 8월 폐쇄되기까지 54년간 군용지로 사용된 매향리의 잔인한 역사를 말해준다. 작가들은 그 포탄 사이에서 피어난 풀과 꽃을 보았다. 그것을 평화와 희망의 상징으로 보았다. 살상의 도구였던 포탄을 들어올리는 연약한 떡잎을 묘사한 작품은 이번 전시의 출발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전시명에서와 같이 김운성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희망'이다. 다양한 색의 떡잎은 군용식품이었던 스펀 통에 놓이기도 하고, 매향리에서 수집한 포탄 조각, 바닷가에 사격 목표물로 설치된 컨테이너 잔해들 사이에 자리 잡기도 한다. 실제 살상의 도구가 되었던, 전쟁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잔해물 사이 그 척박하고 메마른 환경에서도 어려움을 뚫고 피어나는 생명을 상징한다.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태어난 생명이지만 쉽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지는 못한다. 본잎이 나오기 위해서는 떡잎이 갈라져 떨어져야 하고, 낮과 밤을 거쳐 해와 달과 별을 만나고 비와 바람을 맞으며 다시 상처가 나고 아물며 성장한다. 이처럼 어떤 생명도 사회도 상처 없이 평화롭게 성장하고 지속할 수는 없다. 다만 그 과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작업실에서 만난 김운성은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에 대해 매우 진지하게 말을 꺼냈다. 그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평화헌법을 가지고 있는 두 나라, 일본과 코스타리카에 관한 이야기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일본은 일본국 헌법 제2장의 '전쟁의 포기'를 구성하는 단독 조문헌법 제 9조¹⁾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헌법으로 전쟁의 포기와 전력의 보유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강한 전력의 '자위대'를 보유하고 있다. 코스타리카는 1948년 내전 이후 피게레스가 집권을 했다. 그는 군대를 해체하고 평화헌법을 만들어 지금까지 군대를 가지지 않고 평화를 유지하고 있다.²⁾ 전쟁과 내전이라는 상처를 겪으면서 두 나라는 군대를 갖지 않는 평화헌법을 도입했지만 그 결과는 전혀 다르다.

김운성은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합리하고 불평등하고 불편한 진실을 묵과하지 않는다. 김운성은 행동하는 예술가이다. '수요집회'에 참석하고,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으며, 세월호 유가족들과 함께 눈물을 흘렸다. 전세계에서 벌어지는 전쟁의 피해자들과 연대하며 위로과 사과를 건넨다. 이번 전시에 야디지족 Yazidis 여성 흉상이 등장한다. 야디지족은 2014년 이라크와 시리아를

1) 일본국 헌법 제9조 (전쟁 포기, 전력 및 교전권 부인) ①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초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바라고 추구하고,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써 국권이 발동되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 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 ②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그 밖의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2) 코스타리카의 평화헌법 12조. 영구적 기관으로서 군대는 폐지한다. 단속과 치안은 필요한 경찰력이 맡는다. 대륙적 협정과 국가방위를 위해서만 군사력을 조직할 수 있다. 어떤 경우든 항상 문민권력에 종속되며,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성명 발표나 선언을 할 수 없다.

점령한 IS에게 무차별 공격을 받아 남자들은 살해당하고 여성은 성노예로 팔려갔다. 김운성은 독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한 달에 한 번 시위를 하는 야디지족 여성을 만났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작업을 하고자 했다. 이들의 흉상 앞에 희망을 상징하는 새싹이 한 점 놓인다. 김운성과 김서경은 <평화의 소녀상> 제작 이후 우리나라의 전쟁의 피해자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역사까지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다. 제주도 서귀포 강정마을 성프란치스코 평화센터에 설치한 <베트남 피에타는>(2017)는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을 사과하고 피해자들을 위로하기 위해 만든 작품이다.

김운성의 작업실을 방문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광화문에서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학살 중지를 촉구하는 시위대를 만났다. 서른명 남짓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모여 초라한 행진을 하고 있었다. 최근 SNS에는 팔레스타인 관련 포스팅을 하면 노출수가 현저하게 줄어든다고 한다. 미디어의 발달로 우리는 지구 반대편의 전쟁 소식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지만 작은 화면 속에 갇힌 전쟁의 실상은 쉽게 왜곡되기도 하고 감추어지기도 한다. 진상을 알리기 위해 길에서 목소리를 내는 그들에게도 ‘희망’이 함께하기를 바란다.

The bean splits its body, pushes out roots, and forms its first leaves.

Kang Sung-eun(Exhibition Planner)

1.

After laying down some cotton and sprinkling it with water, a few beans are placed on top in a clear chalet. In days, with nothing but water and sunlight, the bean splits its body, pushes out roots, and forms its first leaves. It was my first time witnessing the moment of life's inception. Kim eun-sung's solo exhibition, «Be Hope» employs the motif of these nascent leaves, symbolizing the process of life being born and growing. More broadly, it represents hope and the commencement of a new life.

As is well known, Kim eun-sung, alongside the sculptor Kim Seo-kyung, is the creator of the “Statue of Peace.” The first statue, erected on December 14, 2011, to mark the 1,000th Wednesday Demonstration calling for the resolution of the comfort women issue, has since multiplied across Korea and the globe. Although crafted to highlight the essence of the comfort women issue, the statue's significance has broadened, not limited to this single issue but encompassing all women and children affected by war and advocating for peace worldwide.

The collaborative works of Kim eun-sung and Kim Seo-kyung are primarily sculptures containing political, social, and historical themes. Before the creation of the “Statue of Peace,” they memorialized martyrs and victims of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with works like the “100th Anniversary Monument for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1994), the “Memorial for Park Sun-young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1994), and the “Memorial Stone for the National Poet Chae Gwang-seok” (2000). Following the statue, they continued with monuments like the “Memorial for Mi-seon and Hyo-seon” (2012), the “Monument for Independence Activist Cho Mun-ki” (2014), the “Statue of Forced Laborers under Japanese Rule” (2016), and the “Unbending Pen” (2019), works that correct distorted history and critique unjust societies.

The reason for mentioning Kim eun-sung and Kim Seo-kyung's collaborative efforts is that the works presented in Kim eun-sung's solo exhibition differ significantly in form from these well-known collaborations. The earlier mentioned works predominantly use heavy, dark bronze to recreate classical figures. In contrast, the works in «Be Hope» are made of synthetic resin, shaped into simple forms of leaves, and painted in bright colors like yellow, lime, and orange.

Kim eun-sung is an artist whose realistic representations are highly acclaimed. Yet, his occasional forays into colorful and simplified works, or those employing reduced forms, are equally engaging. These include anthropomorphized animals, the “Key of Peace” series (2018), which decorates key-shaped sculptures with the flags of South and North Korea using ribbons and fabric, and “Dilemma” (2019), which shows the incompatibility of ideologies through simplified red and blue human figures attached at an angle—placing one upright casts the other as a shadow on the ground. These politically charged yet satirical portrayals resonate deeply with their incisive content.

2.

In 2016, Seoul Plaza hosted the “AEV (Art’s Eye View) Project for a World Without War.” Within this project, Kim Seo-kyung and Kim eun-sung displayed an installation that actively used shells and shrapnel from Maehyang-ri as materials. These remnants from Maehyang-ri, which had served as a bombing range for the US Air Force during the Korean War from 1951 and continued for 54 years until its closure in August 2005, tell the cruel history of the area. The artists saw grass and flowers that had bloomed among those shells, viewing them as symbols of peace and hope. The depiction of tender sprouts lifting heavy artillery shells can be said to be the genesis of this exhibition.

As the exhibition title suggests, what Kim eun-sung aims to discuss is ‘hope.’ The varied colored sprouts are placed in cans of Spam, once military rations, amid fragments of shells collected from Maehyang-ri and debris from containers used as shooting targets along the coast. These symbols of actual instruments of killing, bearing the scars of war, represent life burgeoning through adversity in a barren and desolate environment. Though emerging from challenging conditions, this life doesn’t readily bloom or bear fruit. For true leaves to sprout, the cotyledons must split and fall away; enduring days and nights, they meet the sun, moon, and stars, weathering rain and wind, bearing and healing wounds as they grow. Thus, no life or society can grow and persist peacefully without scars. What’s essential is finding how to accept and overcome this process.

1) Article 9 of the Japanese Constitution (Renunciation of War, Non-Maintenance of Armed Forces, and Denial of the Right of Belligerency): ① The Japanese people forever renounce war as a sovereign right of the nation and the threat or use of force as a means of settling international disputes. ② To accomplish the aim of the preceding paragraph, land, sea, and air forces, as well as other war potential, will never be maintained. The right of belligerency of the state will not be recognized.

2) Article 12 of the Costa Rican Peace Constitution abolishes the army as a permanent institution. Law enforcement and public security will oversee the necessary police forces. Military forces can only be organized under the continental agreement or for national defense purposes. In any case, they will always be subordinate to the civil power and cannot make personal or collective statements or declarations.

In the studio, I met with Kim eun-sung, who spoke earnestly about the wars occurring around the world today. Of these discussions, the most memorable was about the two countries with peace constitutions, Japan and Costa Rica. After its defeat in World War II, Japan adopted Article 9¹⁾ of its constitution, which renounces war and forbids the maintenance of military forces. Despite this constitutional commitment to peace and the prohibition of maintaining military forces, Japan possesses a formidable Self-Defense Force. After a civil war in 1948, José Figueres Ferrer took power in Costa Rica, dismantled the military, and established a peace constitution, maintaining a peaceful, military-free state ever since.²⁾ Both countries, having experienced war and civil conflict wounds, adopted peace constitutions that eschew military forces, yet their outcomes have been markedly different.

Kim eun-sung does not overlook the uncomfortable truths of injustice, inequality, and irrationality around us. He is an activist artist, participating in Wednesday Demonstrations, holding candles at Gwanghwamun Square, and shedding tears with the families of the Sewol ferry victims. He offers consolation and apologies, standing in solidarity with victims of wars across the globe. His exhibition features busts of Yazidi women. The Yazidis were subjected to indiscriminate attacks by ISIS in 2014, with men killed and women sold into sexual slavery. Kim eun-sung met with Yazidi women holding monthly vigils before the German Bundestag and sought to create work to offer them comfort. A sprout symbolizing hope is placed before these busts. Following the creation of the “Statue of Peace,” Kim eun-sung and Kim Seo-kyung began to turn their attention not only to Korea’s war victims but also to the histories of neighboring countries. The “Vietnam Pieta” (2017), installed at the St. Francis Peace Center in Gangjeong Village, Seogwipo, Jeju, was created to apologize to and comfort the victims of civilian massacres by Korean troops during the Vietnam War.

Returning home from Kim eun-sung’s studio, I encountered a small demonstration in Gwanghwamun calling for the cessation of Israeli massacres in Palestine. A modest group of about thirty people had gathered for a humble march. It’s said that social media posts related to Palestine nowadays significantly decrease in visibility. While advances in media allow us to easily access news of wars on the other side of the globe, the realities of these wars, confined to small screens, can be easily distorted or concealed. I aspire for ‘hope’ to accompany those raising their voices in the streets to reveal the truth.



6.5x15x20cm



6.5x15x20cm



6.5x15x20cm



6.5x15x20cm



6.5x15x20cm



6.5x15x2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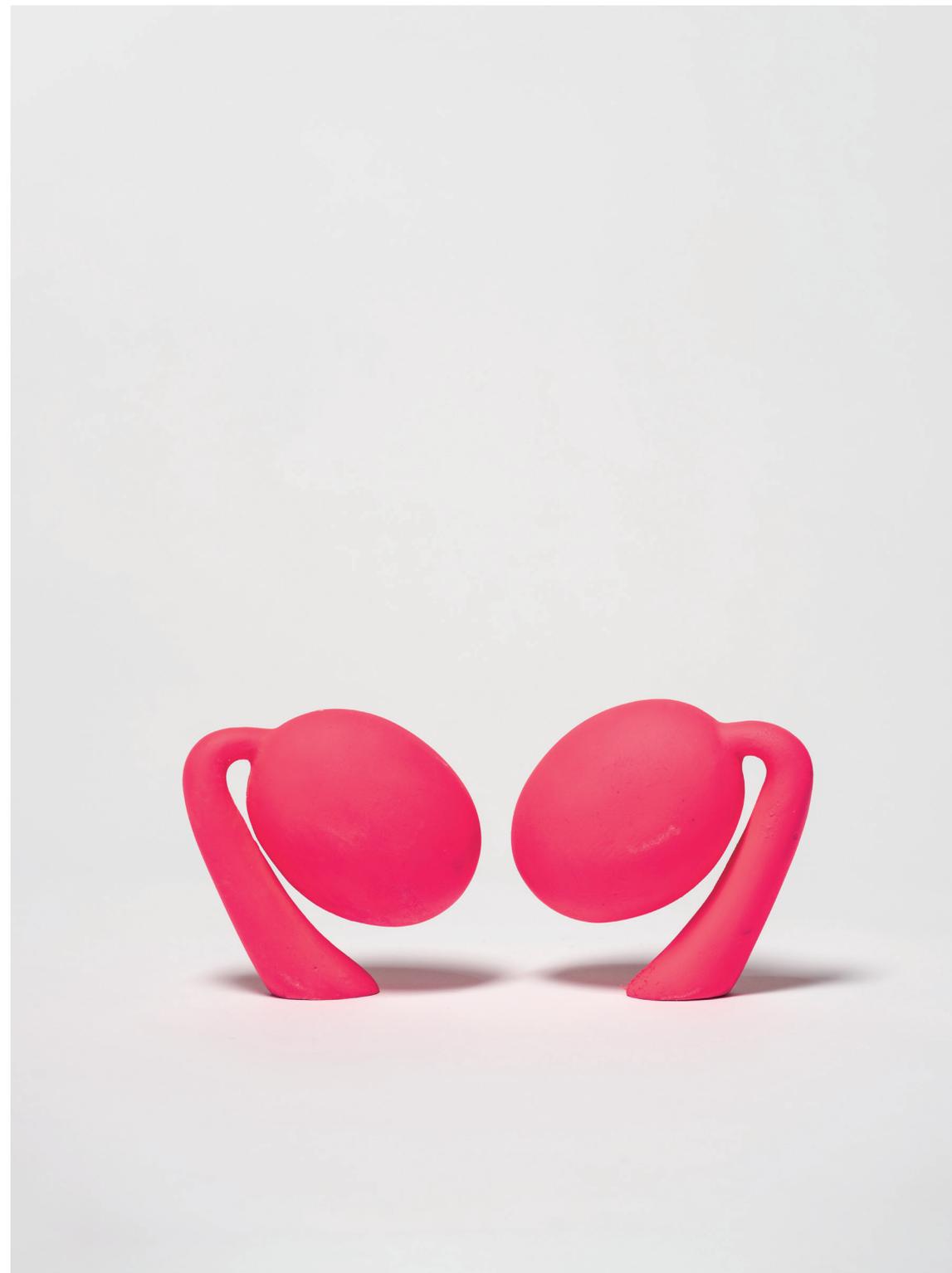
6.5x15x20cm



16x11x12cm



13x18x20cm



25x5x12cm



18x20x53cm



33x20x33cm



17x7x25cm



13x33x55cm



30x14x17cm

바람 타고 온 구름이
상처 난 자리에 용기를 심다.

용기가 용기에게,
용기가 감기처럼 감염되었으면.

Clouds, carried by the wind,
sow courage in wounded places.

Wishing courage would infect courage,
like a cold spreading from one
to another.



14x20x8cm

이 결과물을 세상에 내놓고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자한다.

나의 실수와 패착, 고통과 고난 혹은
작은 성취나 잠깐의 희열의 맛에 대한 다양한 감정과 과정을 담아
우려와 희망을 내 놓는다.

I intend to share these outcomes with
the world and communicate with people.

Encapsulating the array of emotions and processes stemming from
my mistakes, missteps, pain, suffering, minor achievements,
and fleeting joys, I present my concerns and hopes.



10x19x8cm



19x5x20cm



21x5x17cm

곳곳의 수많은 함정과 미로의 벽들은
언제나 앞을 가로막고 비켜주지 않는다.

막아선 벽들을 따라 끌려가다 보면 벽 넘어 벽이다.

하지만 벽과 벽 사이 작은 실낱같은 빛이 비취지는 곳에서
반항할 용기를 내어 버티기로 했다.

중력으로 에워싼 거대한 중압감의 벽과 벽들 사이로
시간의 냄새가 났다.

벽들이 인도하는 길에 멈춰서고 마음을 다스리기로 했다.

덮여진 흙더미를 헤치고 나오니 중력의 벽들은 여전히 강압적이었다.

그러나 다시 맡게 된 바람의 냄새와 작을 실오라기 빛줄기와
날개 달린 시간은 중력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었다.

나는 이미 중력을 거스르는 씨앗이 되어버렸으니.

The numerous pitfalls and walls of mazes
never cease to block the way, never step aside.

Following the walls that stand in the way leads to yet more walls.

Yet, in places where a sliver of light shines between the walls,
I've decided to muster the courage to resist.

Between the walls, enveloped in gravity's intense pressure,
there was the scent of time.

I chose to stop at the path led by the walls and calm my heart.

Emerging through the covered piles of dirt,
the walls of gravity remained oppressive.

However, the scent of wind caught anew, the thin strands of light,
and time with wings meant there was no need to fear gravity.

For I had already become a seed that defies grav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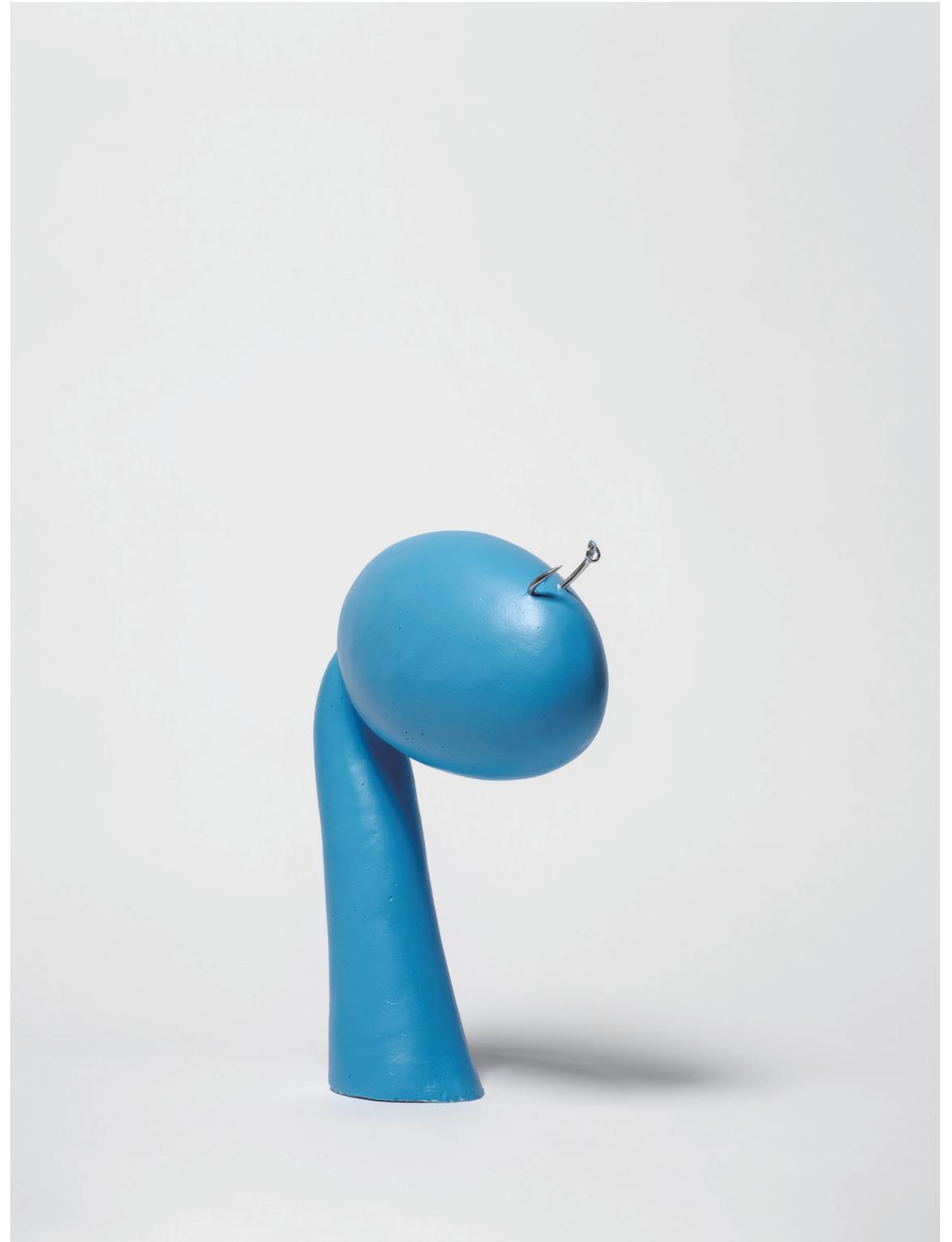
35x5x34cm



8x15x12cm



13x39x45cm



13x33x45cm



13x33x48cm



13x33x45cm



29x42x55cm

누구나 상처가 있다.

어떤 상처는 지워지지 않고
내 삶의 일부가 되어
곳은날 통증이 재발되듯
그냥 안고 살아야 하는 나의 일부가 되었다.

이를 인정하기까지 참 많은 시간이 흘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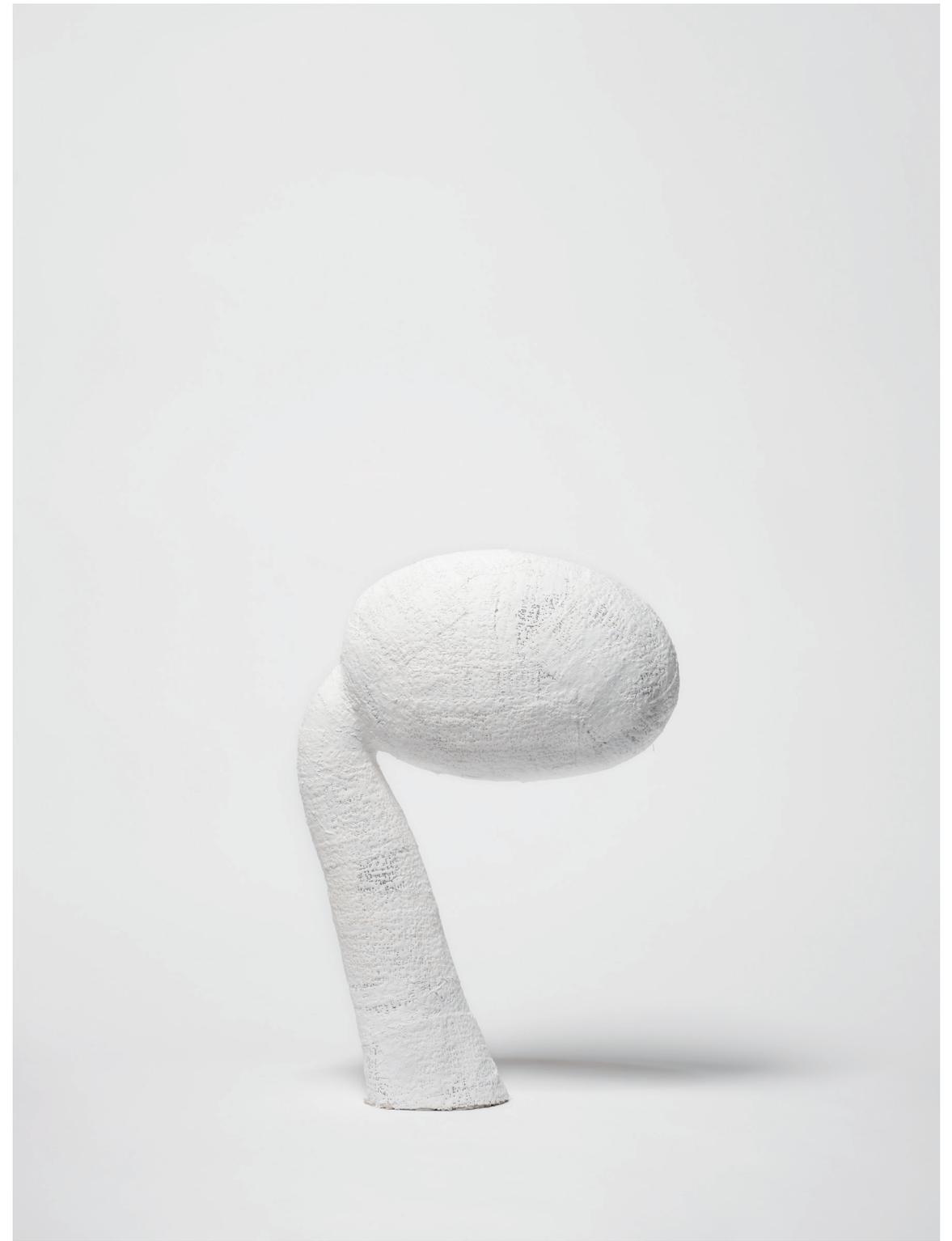
Everyone bears scars.

Some scars don't fade
but become a part of my life,
recurring in pain on gloomy days,
a part of me that I have to live with.

It took a long time to come to terms with this.



13x33x45cm



13x33x45cm



13x33x86cm

살다 보면 내가 나를 만난다.
어딘가 어색한 모습의 나는 타인의 말과 행동에서,
혹은 나에게서 나를 만난다.
나를 다독이기에 앞서 이야기 한번 해보고 싶다.

In life, I meet myself.
I encounter a somewhat awkward version of myself in the words and actions
of others, or I meet myself in me.
Before soothing myself, I'd like to have a talk.



21x39x12cm



14x30x63cm



42x6x9.5cm (위)
30.5x23x11.5cm (아래)



홀로선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과 만난다.
A person standing alone meets everything in the world.

45x30x69cm

김운성 (b.1964)

1964 춘천 생
1988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조소학과

[그룹전]

1990 젊은 시각 내일への 제안(예술의 전당) 등 다수의 그룹전 및 단체전 출품
1994 새로운 전망(모란미술관)
자전적 문화론(갤러리 서호)
일본군 위안부와 조선의 소녀들(고양어울림누리 어울림미술관)
1996 이 작가를 주목한다(동아갤러리)
움직이는 미술관(국립현대미술관)
생명의 근원(서남미술관)
1996 현대 조각 초대전(춘천 문화방송국)
전국 환경 미술전(수원문화원)
한국 모더니즘의 전개 : 1970~1990 근대의 초극(금호미술관)
1997 김복진 미술제(청주 예술의 마당)
청담 미술제(갤러리 포커스)
2005 독도 특별전(서울시청 광장)
독도수호 특별전(인천 문화예술회관)
세이신 미술 한일 교류전(2002~2005 나고야 도립 미술관, 공화랑)
제주 신화 미술제(갤러리 제주아트)
2006 전남 광주 민미협 창립전(광주문화예술회관)
포항의 미래(포항문화예술회관)
조국의 산하
작품에 손대세요!(갤러리 눈)
작품에 손대세요!(오산시청)
2007 제10회 부부 조각전+1(김경보), 2007마리 돼지와 함께하는 꿈과 희망의 노래
(서울 디자인 워크스)
2008 중국 올림픽 기념 조각전(중국 순회)
한중수교 15주년 기념전(세기단미술관, 북경)
2009 소! 광화문에 오다!(광 갤러리)
2011 지워지는 미래(서울시립미술관)
DMZ(아람누리미술관)
쌀(전주문화예술회관)
2012 DMZ(평택문예회관)
꽃이 되어 바람 되어(서울서대문형무소 역사관 내)
2013 내 앞에 서다(세종문화회관)
DMZ(수원문예회관)
임진강(교하도서관 전시장)

[개인전 및 2인전]

1996 1회 개인전(21세기화랑)
2011 2회 개인전(박진화미술관)
1993~2012 김운성김서경 조각전(1회~11회)

[무대미술]

2000 심청아 나랑 놀자(국립극장 달오름)
2002 정약용 프로젝트(대학로 학전 그린 소극장)
2006 통가통가 토리극(대학로 축제 소극장)

[수상]

2002 경기 교육청 공로상
2005 일본 나고야 세이신 도립미술관 전시 관람객 대상 우수작가 1위
2008 베이징 올림픽 환경조각 공모전 우수상
2012 세상을 밝게 만든 사람들(환경재단)
새뜰이 선정(중앙일보)
세상을 따듯하게 만든 사람들 선정(YTN)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로상
2015 제1회 성유보 특별상
강덕경 상(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16 역사넷 실천상(역사교육바로세우기 시민네트워크)

[경력]

고양시평화통일재단 운영위원
통일뉴스 운영위원
휴과 도시 포럼 운영위원
서울 내일 포럼 운영위원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자문위원

2024 소전재단 초대전

<Be Hope>

김운성

전시기간 2024.04.03.-05.31.

참여작가 김운성

관람시간 화요일-일요일, 10:00-18:00

전시장소 소전미술관 2층 전시실, 야외 전시장

전시총괄

소전재단 이사장 · 소전미술관 관장 이동섭

전시기획

학예사 이은솔

사진

전병철

디자인

스튜디오 xyz

www.sojeonmuseum.org

경기도 시흥시 소래산길 41

031-313-1211

© 2024 김운성

본 도록은 소전재단 · 소전미술관 초대전 <Be Hope>의 전시 기록으로서 소전재단과 소전미술관에서 발행하였습니다. 모든 글과 이미지의 저작권은 작가에게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서 무단 전재, 복제, 변형, 송신을 금합니다.

